

# 학교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개념 및 사례분석

The concept and case analysis of disaster that occurs on school property



최 원 호 / 박사, 한국교육상담연구원 원장, 한영신학대 겸임교수  
Choi, Won-Ho / President, Korean education & counseling institute  
bk21pekr@hanmail.net

## 1. 들어가는 말

학생들의 삶의 터전은 가정보다 학교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이나 학교에서 학교시간에 이르기까지 온종일 학교에서 시간을 보낸다.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인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교육활동 시간도 비례하다 보니 고등학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삼시 세끼를 학교에서 해결할 만큼 최소 8시간에서 14시간 이상인 셈이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의 피해규모는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이나 국가신용도 평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자연재난에 대비한 적극적인 예방이나 피해 저감요인이나,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이며, 복구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들이 중시되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의 주 생활공간인 학교시설이 재난 발생에 대비한 안전공간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는지 재난에 대한 개념과 및 재난 유형별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2. 학교시설의 재난·재해 개념 및 저감 개념

### 2.1 학교시설의 재난·재해개념

재난·재해는 광범위한 인명, 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자연재해와 인적·사회적 재난으로 정의한다. 자연재난이 주는 특징은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재난도 불가항력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연재난만큼은 인간의 능력으로 조정이나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과학이 발달해도 폭우를 내리게도 할 수도 없지만 멈추게도 할 수 없다. 태풍이 몰아 휘몰아 칠

때 어떤 방법으로도 통제할 수 없다는 대처불능의 상태 앞에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순간들이다. 학교시설에 대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는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이 항상 내재되어 있어 재난 안전에 대한 방어적 교육과 대피 훈련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첫째, 자연재해는 기상현상, 지각변동, 천체활동, 우주기상과 같은 자연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하는 재해 즉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폭풍해일, 지진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적조, 우박, 폭염, 한파, 산사태, 급경사지 붕괴, 화산폭발 등이다.

둘째, 인적·사회적 재난은 인위적 요소에 의해 발생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하여 그 피해가 국가 기반체제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재난을 말한다. 즉, 감염병 유행, 가축전염병 유행, 폭발사고, 가스사고, 화생방사고, 교통사고, 건축물붕괴, 에너지 기반시설 파괴, 정보통신 기반시설 파괴, 교통수송 기반시설 파괴, 보건의료 시설 파괴, 폐기물처리시설 파괴, 용수 기반시설 파괴, 화재, 산불, 환경오염사고, 사이버테러이다.

학교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부분이 인적재난이며,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화상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기 쉽다. 이 경우 생존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심신 양면에 영향이 남는다. 인위적인 재해인 만큼 피해자 심리에는 보상을 받고 싶은 감정이 강하게 남는 경우가 많다. 유·초등학교 일수록 저학년들이 많으므로 그 가족이나 유족이 겪는 고통이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6월30일 발생한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으로 유치원생 23명, 부상 5명이 발생하여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한바있다. 그러나 풍해, 수해 및 설해, 지진으로 인한 학교시설 피해는 자연재난이다. 화재로 인한 학생 및 교·직원이 신체상의 손해를 입으면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혜택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화재를 비롯한 자연재난의 경우, 발생원인, 발생장소, 발생시간, 피해의 직·간접성에 의해 피해 규모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재난 및 안전관리 정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과 특성을 지니게 되며 특히 최근에는 대형화되는 자연재해가 재해 잠재요인인 화재, 붕괴, 폭발과 같은 인위적 재해와 연결되어 2차, 3차 피해로 확산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학교시설에서는 화재뿐만 아니라, 자연재난 발생시에도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이 결합한 형태의 대형 재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재해 접근법(All Hazard Approach)에 따른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대응 훈련이나 매뉴얼 개발 등 방재정책이 요구된다. 재해저감에 대한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총체적 재해관리(Total Disaster Risk Management: TDRM)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이 시급하다.

## 2.2 학교시설의 재해 저감 개념

각종 재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위험을 저감시키기 위해 교과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재해 대응 정책 수립과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학교시설에서의 재해위험(disaster risk)은 재해(hazard)가 발생할 수 있는 것과 재해취약요인(vulnerability)이 각종 시설마다 상존하고 있어,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교육 구성원들의 위험노출(exposure) 방지를 위한 체계적 훈련이 요구된다.

재해(hazard)는 대개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재해위험의 감소를 위해서는 재해 취약성(vulnerability)과 재해위험에의 노출(exposure)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다. 학교시설에서 재해 위험의 3가지 요인을 저감하는 개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재해(hazard) 발생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도록 사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불특정 여러 사람들의 출입과 학교시설 개방화 때문에 지역 주민의 출입이 빈번한 만큼 재난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 발생 요인이 높다. 따라서 학교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여 재해 영향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등 학교시설의 재해에 대한 노출(exposure)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시설 용도별 재해

발생에 대한 사전예측 및 정확한 감시와 경고를 포함해 재해발생시 신속한 경보 및 대피, 초기대응 방법 등이 용이하도록 재난대응 조직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 학교시설에서의 재난(안전사고)개념은 궁극적으로 저감(mitigation)과 대비(preparedness) 활동을 통한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는 것이다. 학교시설에는 다양한 시설과 복합화 형태의 건물로 재해 취약요인(vulnerability)들이 어떤 건물보다 더 많은 취약점을 갖고 있어 취약 요소를 찾아 줄임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감소시키는 방법이다. 재해저감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 시설물 건축 과정에서부터 재난 예방을 위한 건축설계, 지형적인 여건 특성을 고려한 재해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보수, 사전 재난예방 및 대피 훈련 등을 통한 비상시 대응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재해발생 자체를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생각하는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화재를 비롯한 인위적인 재난은 통제 가능한 것으로 여기나, 풍·수해를 비롯한 자연재난은 아예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대응책 마련에도 소홀하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규모나 정도는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화재는 사전 화재 점검 등을 통하여 화재 취약시설을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이지만 풍·수해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자연재난 발생 그 자체는 인간의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지만, 피해확산 범위 등은 얼마든지 사전 점검과 대비태세에 따라 피해범위와 정도를 줄일 수 있음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연현상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하여 재해발생 요인 자체(hazard)를 제거함으로써 미래의 재해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3. 학교시설의 재난 발생 현황

### 3.1 학교시설의 재난사고에 대비한 법적 보험 가입 제도

학교건물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특수 건물로 분류되어 특수 건물의 소유자는 보험가입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 대상은 구체적으로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이다.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

표 1. 최근 3년간 교육시설 재난발생 현황

(복구비: 천원)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건수	복구비	건수	복구비	건수	복구비	건수	복구비
화재	102	2,251,403	329	3,785,651	255	4,797,945	686	10,834,999
풍해	33	300,099	1,023	7,006,844	210	1,277,922	1,266	8,584,865
수해	29	794,092	108	2,251,259	228	3,353,728	365	6,399,079
설해	-	-	3	19,074	91	2,556,009	94	2,575,083
합계	164	3,345,594	1,463	13,062,828	784	11,985,604	1,751	28,394,026

\* 출처 : 2012 교육시설재난 사례집,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 한다) 또는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신채손해배상특약 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특히 학교시설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공제상품에 가입한 건물은 보험 가입을 이행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반 건물의 화재로 인한 건물 피해 보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교육시설의 경우 오히려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나 신체 피해보상 및 대책을 종합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를 교육시설재난공제 상품 개발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총괄적인 인명 피해 보상 범위까지 담보하고 있어 확실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 3.2 학교시설의 최근 3년간 재난 발생 현황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표 1>에서와 같이, 최근 3년간(2009-2011) 교육시설의 재난발생 건수는 총

1,751건이 발생하여 283억 94백만 원의 복구비가 지급되었고 화재 및 자연재해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1년도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재난 종별 발생현황은 <표 2>에서와 같이, 화재 255건(32.5%, 47억9천만원), 풍해 210건(26.8%, 12억7천만원), 수해 228건(29.1%, 33억5천만원), 설해 91건(11.6%, 25억5천만원)이 발생하여, 총 784건의 재난발생으로 119억8천만원의 복구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재해 종별인 화재, 풍해, 수해 및 설해로 구분하여 학교설립별 발생비율은 국립학교 45건에 5.7%, 공립학교 630건에 80.4%, 사립학교 109건에 13.9%로 80%이상이 공립학교에서 발생했다.

2011년도 화재 발생은 255건으로 2010년도 329건에 비해 22%가 감소하였으나, 최근 3년간 화재 발생에 따른 학교시설 피해는 화재의 대형화, 낙뢰 피해로 인한 학교시설물 및 물품 피해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 가. 화재발생 원인 중 낙뢰 때문에 화재 147건이 발생하여 전체 발생의 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기적 원인인 전기합선, 전기단락 및 과부하 등으로 인한 화재는 37건이 발생하여 전체의 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전기화재 때문인 피해는 평균 44건으로 집계되었으나 낙뢰 때문인 피해가 급증하면서 2009년도 36건에 불과하던 낙뢰피해가 기상이변 등으로 증가 추세이다.
- 나. 화재발생 요일별로 분석하면 금요일에 75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발생시간별로는 심야인 21시~05시 사이에 43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다. 학교별은 초등학교 279건, 중학교 161건, 인문계고 120건, 실업계고 83건, 전문대학 9건, 대학교 83건, 기타 교육시설에서 49건의 재난이 발생하였다.
- 라. 지역별로는 수도권 집중호우로 서울에서 129건의 재난이 발생하였고, 복구비는 영동지역 폭설로 강원지역의 지급액이 22억 3천만 원으로 가장 많이 지급되어 지역별 재난 특성을 알 수 있다.

표 2. 2011년도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재난 종별 발생현황

(복구비: 천원)

구분	화재		풍해		수해		설해		합계	
	건수	복구비	건수	복구비	건수	복구비	건수	복구비	건수	복구비
국립	14	403,091	13	110,858	17	142,130	1	30,503	45	686,582
공립	192	2,401,034	182	1,039,667	182	2,527,821	74	2,223,718	630	8,192,240
사립	49	1,993,820	15	127,397	29	683,777	16	301,788	109	3,106,782
합계	255	4,797,945	210	1,277,922	228	3,353,728	91	2,556,009	784	11,985,604

\* 출처 : 2012 교육시설재난 사례집,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학교시설의 안전과 피난

- 마. 월별로는 7, 8월에 발생한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 때문에 474건(53억5천만원)의 재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여름철 피해가 크게 나타났다.
- 바. 건축연도별로 분석하면 현재 학교시설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990년도 이후 준공된 건물의 재난발생이 전체의 60%를 차지하였으며 준공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서의 재난발생은 전체의 20% 이상 차지하고 있다.
- 사. 건물용도별로는 교실에서 530건(68%)의 재난이 발생하여 가장 큰 피해를 입으며 교실에서 발생한 대부분 재난은 화재와 풍·수해로 나타났다.

3.3 학교시설의 재난 유형별 피해사례

재난 유형별로는 풍해 및 설해로 인한 건물 지붕과손 피해가 87건이 발생하여 27억 2천만원의 복구비가 지급되었으며, 전체 피해의 11%를 차지하였다.

1) 화재로 인한 피해사례

화재(낙뢰포함) 때문인 피해는 <표 3>에서와 같이 설비과손 피해가 123건, 일부소실 48건으로 각각 2억3천만원과 11억4천만원의 복구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의 경우 연기로 인한 건물 전체 확산 피해가 심각하기에 방과 후 방화문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낙뢰 피해는 건물 화재 발생뿐만 아니라, 각종 전자 기기 제품을 비롯한 수배전반, 전선장비의 장애는 물론 학교 행정과 교육활동을 마비시키는 정전사태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 새로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표 3. 화재로 인한 피해 (단위 : 피해건수)

건물전피	내부전소	일부소실	기타(폭발)
5	21	48	3
물품과손	부속물	설비과손	
44	12	123	

\* 출처 : 2012 교육시설재난 사례집, 교육시설재난공제회

2) 풍해로 인한 피해사례

풍해로 인한 피해는 <표 4>에서와 같이 지붕과손이 59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여 6억8천만원의 복구비가 지급되었으며, 이는 전체 풍해의 2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은 강풍을 동반하기에 학교 시설물의 취약부분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역별로도 학교 배치에 따라 강풍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위험도(Risk)가 일반 시설물보다 최소 3배~12배 정도 큰 위

험도를 가지고 있다. 주로 지붕모양에 따라 박공, 편지붕, 다중박공의 차이가 있고 지붕형태, 지붕물매, 지붕처마로 인한 강풍 피해가 발생했다. 지붕이나 건물 마감 재료의 탈락이 주를 이루는데 아스팔트 성글, 칼라강판, 샌드위치 판넬, 스펀드럴, SMC, 치장벽돌, 드라이비트 탈락, 창호탈락, 현관문, 학교 부착물, 연결 복도 등 매년 발생하는 동일한 시설물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태풍에 대비한 보다 치밀한 사전 안전점검과 긴급 보수 자체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의 지름길임을 알 수 있다.

태풍으로 인한 학교시설물 피해 중에서 강당이나 체육관 등의 특수시설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 교실에 비해 피해 규모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원의 예산과 장기간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며 학생들의 교육활동도 중단되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평소 학교시설물 관리에 보다 효율적인 풍해 피해 예측 및 대비를 위한 설계나 유지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강풍 취약 시설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4. 풍해로 인한 피해 (단위 : 피해건수)

지붕과손	후레싱	외벽과손	외단열과손
59	10	15	18
설비과손	창호과손	천정과손	기타
13	27	27	4
물품과손	부속물과손		
2	35		

\* 출처 : 2012 교육시설재난 사례집, 교육시설재난공제회

3) 수해로 인한 피해사례

수해로 인한 피해는 <표 5>에서와 같이 바닥침수가 6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여 16억8천만원의 복구비가 지급되었으며, 이는 전체 수해의 22%를 차지하였다. 수해 피해는 지역 특성상 저지대에 위치한 학교시설의 피해는 매년마다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기 때문에, 1차 바닥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후로링 바닥 자체를 항구적인 복구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상습 침수지역이나 배수로 주변에 상시적인 모래주머니를 배치하거나 지하 주차장 배수로 차단막 설치 등을 통하여 학교시설의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표 5. 수해로 인한 피해 (단위 : 피해건수)

일부소실	토사유입	바닥침수	바닥벽침수
53	6	60	21
외벽과손	창호·설비등	물품	부속물
7	51	32	24

\* 출처 : 2012 교육시설재난 사례집, 교육시설재난공제회

4) 설해로 인한 피해사례

2011년 영동지역의 폭설로 인한 피해는 <표 6>에서와 같이 적설하중에 따른 지붕파손 27건 외 전체 91건의 피해가 발생하여 25억 5천만원의 복구비가 지급되었다.

표 6. 설해로 인한 피해 (단위 : 피해건수)

지붕파손	부속물	외벽파손	설비파손
27	39	4	6
천정파손	캐노피파손	건물전괴	
5	6	4	24

\* 출처 : 2012 교육시설재난 사례집, 교육시설재난공제회

100년 만에 내린 폭설은 하루 동안에 내린 최고치 양이라고 부르는 최심신적설량의 기록을 갱신했다. 이러한 적설하중을 견디지 못해 체육관이나 강당 지붕이 내려앉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 특정지역의 특수 건물 지붕 제설 작업 보완 대책이 요구된다.

5) 화재로 인한 신체손해

최근 3년간 교육시설의 화재로 인한 신체손해 발생건수는 <표 7>에서와 같이 총 4건이 발생하여 2명이 사망, 19명이 부상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유형은 연기흡입 때문인 부상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2010년도에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총 1건이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피해원인은 대학교 실험실에서 가스용기에 가스주입 중 화학적 폭발로 피해가 발생하였다. 연구활동 중에 일어난 폭발사고지만 생존자가 이러한 현장에서 지도교수가 죽은 모습을 목격하고 비참한 폭발 현장을 반복해서 떠올리게 될 때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엄청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겪게 된다. 지도교수 또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상실감과 부정적인 심리적 충격에 대한 감정을 극복하도록 하는 심리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감정과 반응을 인정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구성원 간의 긍정적이고 신뢰적인 치료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표 7.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신체손해 발생 현황

(단위 : 명)

2009년		2010년		2011년		합계	
재난 건수	피해자수	재난 건수	피해자수	재난 건수	피해자수	재난 건수	피해자수
2	11	1	7	1	3	4	21

4. 나가는 말

최근 발생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으로 인한 동시다발적이거나 계절라성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강우량이나 풍속, 적설량 등은 100년의 통계를 뛰어넘는 기록적인 수치들로 갱신되고 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에서도 설계하중이나 구조계산 등이 한층 강화되어야 할 정도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예측할 수 없는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예방과 관리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학교시설은 어떤 건물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재난을 잘 극복하고 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전에 재난을 대비하는 견해가 확장된다는 점 등을 부각시켜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예방의식을 강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학교시설은 교육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건축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재난으로부터 학생이나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대피시설로도 부족함이 없는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시설은 화재나 풍·수해로 인한 재난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외부인 출입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에도 많은 허점이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시설물 확보를 위한 사전 재난예방 기능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사례분석을 통하여 매년마다 교육시설에서의 재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듯이 재해는 일어나기 마련이다. 중요한 점은 사고를 최대한으로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다. 교육정책에서부터 교직원 및 학생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예방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 정도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학교시설의 재난예방과 대응책에 대한 예산지출은 매우 미흡한 실정을 반영하여 정책적으로 새로운 평가 모델의 지표를 개발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참고문헌

1.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교육시설재난사례집, 2012
2. 한국BCP협회, 교육시설재난관리 국제표준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학술연구, 2012
3. 이재은 외, 재난관리론, 대영문화사, 2006
4. 대한불안장애학회, 재난과 정신건강, 2004